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발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담당자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편집장 김윤희입니다.

‘제 3 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공모전에 좋은 작품을 보내준 많은 학생들과 수고하신 지도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신 3분의 심사위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평 참조)

에세이 공모전 안내문에 공지한 바와 같이 **수상자들 전원은 수상 소감문과**

소감 동영상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마감 날짜는 오는 7 월 8 일(토요일)**

입니다.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되, 두 곳으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yunhuikim@yahoo.com ; 정주영기념미주재단: jychungmemorial@gmail.com

1. 시상 내역 및 상금 (모든 입상자에게 상패와 장학금 수여)

상명	상금(장학금)	구분	인원
대상	1,000불	중등부	1명
금상	500불	초등부	1명
		중등부	1명
은상	400불	초등부	2명
		중등부	2명
동상	300불	초등부	2명
		중등부	2명
장려상	200불	초등부	3명

		중등부	7명
합계	6,800불		총 21명

2. 특전:

- ① 대상 수상자에게는 시상식 초청 항공권과 1박 2일 체재비 일체를 정주영 기념 미주 재단에서 제공함. (학부모가 함께 참석 시, 학부모 1인의 항공료를 재단에서 제공함.)
- ② 금상 이하 수상자는 상금과 상장을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임.
- ③ 모든 입상작은 단행본으로 엮어 NAKS 산하 각 한국학교에 배부할 예정임.

3. 의무:

- ① 수상자들은 수상 후, 수상 소감문과 수상 소감 동영상을 정주영 기념 미주재단 담당자와 NAKS 담당자에게 **7 월 8 일 (토요일)까지 2 곳으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김윤희: yunhuikim@yahoo.com ; 정주영기념미주재단: jychungmemorial@gmail.com

4. 시상식

- ① 일시: 2017년 8월 11일 (금) 오후 7시 만찬 직후
(대상 수상자는 6시까지 만찬 장소에 입실할 것)
- ② 장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장
Atlanta Marriott Marquis
(265 Peachtree Center Avenue NE, Atlanta, GA 30303 / 404.521.0000)

5. 주관 및 후원

- ① 주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② 후원: 정주영 기념 미주 재단

제3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명단 (2017)

중등부	이름	영문이름	학년	학교	지역협의회
대상	최하영	Eunice Choi	11학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미시간
금상	김유미	Cassandra Kim	10학년	벨뷰통합 한국학교	서북미
은상	박지현	Jihyeon Park	8학년	뿌리깊은나무 한국학교	동북부
	조성찬	Sungchan Cho	7학년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한국학교	동중부
동상	이 겹	Stella Lee	9학년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한국학교	동중부
	주민하	Edward Joo	7학년	열린문 한국학교	워싱턴
장려상	허지혜	Maristella Heo	7학년	성 김대건 한국학교	북가주
	황혜령	Hyeryeong Hwang	7학년	벨뷰통합 한국학교	서북미
	박시규	Samuel Sheekyoo Park	7학년	열린문 한국학교	워싱턴
	이주헌	Chrissa Lee	7학년	열린문 한국학교	워싱턴
	정예송	Yessica Chong	11학년	뉴송한글학교	남서부
	주민영	Elizabeth Joo	7학년	열린문 한국학교	워싱턴
	배온유	Ohnyoo Esther Bae	9학년	열린문 한국학교	워싱턴

초등부	이름	영문이름	학년	학교	지역협의회
금상	마리아	Ria Ma	4학년	순복음타코마제일한국학교	서북미
은상	양윤서	Yunseo Yang	4학년	시카고 제일연합한국학교	중서부
	신효린	Emily Shin	4학년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동중부
동상	윤성민	David Yun	5학년	우리 한글학교	미시간
	백승리	Michelle Baik	5학년	우리 한글학교	미시간
장려상	황현준	Daniel Hwang	4학년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북가주
	김유나	Calliope Kim	6학년	벨뷰통합 한국학교	서북미
	김은비	Erica Kim	5학년	한울 한국학교	북가주

6. 심사 평:

"예년에 비해 응모자수는 줄어들었지만, 출품된 독후감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응모한 거의 모든 학생들의 글에서 정확한 어휘선택, 문법에 맞는 문장구사력, 한 단락 안에서 하나의 주제 문장과 그에 어울리는 부연문장을 조직할 수 있는 문단 응집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이라면, 여전히 독후감을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독후감이라는 장르는, 특히 그것이 인물에 관한 전기라면 그 인물의 인생 스토리가 자기 자신의 실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관성을 발견하여 의미화를 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점에서, 최우수 혹은 우수 독후감으로 선정된 학생들의 의미화 능력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정영아 교수>

"한국어를 배우고, 이를 표현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좋습니다. 정주영 에세이는 한국의 어려웠던 과거를 알고, 부모님의 삶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의 응모에는 실제 부모님의 인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가족의 이해가 더 깊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책의 내용을 짚 나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책의 내용과 감상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글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조현용 교수>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 실력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간혹 번역 투의 내용이나 학생들이 이런 표현이나 단어를 알고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훌륭합니다. 1회, 2회 대회에 비해 책 내용을 요약하거나 나열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책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과 도전을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글쓰기가 많았습니다. 재치 있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학생도 있고 또 본인들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진솔하게 느낌을 이야기한 글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훌륭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도하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역시 힘든 한국어 글쓰기에 도전한 그 정신에 격려를 보냅니다. <오세웅 교수>